



한기호(왼쪽 셋째) 국방위원장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강포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5군단의 호국훈련 현장을 찾아 도하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군 작전 수행 능력·군사대비태세 확인

국회 국방위, 육군5군단 훈련현장 찾아 도하훈련 참관 장애물 극복 능력 점검 격려금 전달하며 완벽 임무 수행 당부 최초 합동전투부대 드론작전사 방문도



우리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인 드론작전사를 찾은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마친 뒤 부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현장점검으로 육군5군단의 호국훈련 현장 등을 방문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장병들의 실제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군사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시 강포 도하훈련장에서 호국훈련의 하나로 진행 중인 도하훈련을 참관했다. 현장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김성민(중장) 군단장도 함께했다. 군단은 지난 23일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9개 시·군 일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무인기 등 다양한 위협을 상징해 실전적인 주야 야외실기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들은 먼저 강영미(준장) 5공병여단 장에게서 도하작전의 중요성과 참가 전력 등 전반적인 훈련사항을 보고받았다. 이어 진행된 훈련에서 5공병여단은 공세행동 중 역습 상황에서 장애물(하천)에 봉착한 아

군 기계화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하작전을 펼쳤다.

의원들은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김군단장과 강 여단장에게 물으며 작전 수행 능력을 파악했다. 성공적으로 구축된 부교를 통해 기계화부대가 도하할 때는 장병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며 여러 차례 큰 박수로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의원들은 부교 위를 직접 걸으며 전시장 장애물 극복 능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작전 방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승·이체익 의원은 강 여단장에게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여단의 신규 도입 장비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물었다. 또 안규백·기동민 의원은 부대 편제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을 대표해 부대에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완벽한 임무 수행을 당부했다.

앞서 의원들은 이날 오전 드론작전사를 방문해 이보형(육군소장) 사령관에게서 부대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지난 9월 1일 창설된 드론작전사는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우리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다. 적 무인기,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다양한 전략·작전적 임무를 수행한다. 글=임채무/사진=이경원 기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The Astronaut 1st Anniversary

JIN

일본 아미는 진의 기념일을 계속 함께 축하합니다.

Photo. A LITTLE BRAVER | WAIT FOR JIN PROJECT JAPAN

